

아프리카 농업 가치사슬 분석과 한국의 농정경험을 활용한 정책제안

박영호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세계지역연구센터
신북방경제실 아프리카중동팀 연구위원
parkyh@kiep.go.kr

정재욱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세계지역연구센터
신북방경제실 아프리카중동팀 부연구위원
jwjung@kiep.go.kr

김예진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세계지역연구센터
신북방경제실 아프리카중동팀 전문연구원
kimyj@kiep.go.kr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 아프리카 농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서는 비료 투입이나 관개시설 확충 등과 같이 특정 분야에서의 개별 사업에 역점을 두기보다는 농산물의 전체적인 흐름, 즉 가치사슬적인 측면에서 접근이 필요함.
 - 단순히 농업생산 확대만으로는 지속가능한 농업발전을 기대하기 어려우며, 시장을 통한 해법, 특히 생산자인 농민과 소비자 간의 거리를 좁힘으로써 선순환구조를 형성하는 것이 중요함.
- 시장을 통해 최종 소비자로부터 가치를 인정받게 되면, 민간기업 등 가치사슬 이해관계자들의 참여 확대로 농업 투입물의 공급이 원활하게 이루어져 농업생산이 늘어나고 제반 농업 인프라와 금융접근여건도 자연스럽게 개선될 수 있음.
 - 농업 가치사슬은 생산이전단계인 투입물 공급에서부터 소비자에 이르기까지 관련 산업과 서비스 활동 전반을 다루는 것으로, 가치사슬 접근방식은 지속가능한 농업 발전을 위한 중요한 협력수단임.
 - 개발협력 측면에서 가치사슬 접근은 가난한 농민이 어렵게 생산한 농산물의 시장판로를 넓혀 줌으로써 이들의 소득을 높여주는 데 그 목적을 두고 있음.
- 한국 농업의 가치사슬 경험 공유와 관련하여 여러 반론이 제기될 수 있지만, 과거 한국은 오늘날 아프리카 농업이 직면해 있는 장애요인들을 선형적으로 경험했을 뿐만 아니라 비교적 성공적으로 극복했다는 점에서 정책적으로 공유할 부분이 적지 않다고 할 수 있음.
 - 아프리카 국가들은 한국의 농업발전에 대해 특별히 주목하고 있는데, 가장 일차적인 이유 중 하나는 초기 조건의 유사성에서 비롯된다고 볼 수 있음.
 - 실제로 현재 아프리카 국가들이 처해 있는 농업과 농촌의 현실은 여러 면에서 한국의 1960년대 상황과 크게 다르지 않음.
- 한국의 농업 발전 경험은 아프리카의 여러 국가로부터 부러움의 대상이 되고 있는데, 아프리카개발은행 (AfDB)과 역내 농업 관련 기관, 그리고 여러 아프리카 국가지도자들과 정책담당자들은 한국의 농업정책 으로부터 정책적 시사점 내지는 교훈을 얻고자 하는 데 주저하지 않고 있음.
 - 이는 그만큼 한국의 농업 발전 경험에 대한 개발수요가 높다는 것을 의미함.
 - 다만 아프리카 측에서 공유하고 싶어하는 한국의 경험은 단순히 세미나 정도의 발표 수준이 아니라 보다 구체적인 사안으로, 가령 어떤 상황에서 어떤 정책과 제도를 동원했는지, 이러한 정책

을 실제적으로 어떻게 실행으로 옮겼는지, 그리고 이를 위해 필요한 금융은 어떻게 조달했는지 등과 같은 세부적인 경험요소들임.

- 나아가 한국의 경험적 요소들을 통해 아프리카의 농업 발전을 위해 제시할 수 있는 정책적 제안이 무엇인지에 대한 개발협력수요도 요청되고 있음.

● 본 연구는 아프리카 농업 가치사슬 문제를 다루는 것으로 아프리카와 한국의 농업을 **평행적으로 비교분석(parallel studies)**하고, 나아가 한국의 농업정책 경험을 활용하여 아프리카에 제시할 수 있는 정책제안을 모색하는 데 그 목적을 두고 있음.

- 농업 가치사슬(Agricultural Value Chain)은 농산물의 생산이 전단계에서부터 최종 소비에 이르기까지 가치창출과정에 참여한 이해관계자들의 제반활동을 의미함.
- 농산물 가치사슬 접근방식은 농산물의 시장판로를 넓혀줌으로써 소득창출에 기여한다는 점에서 국제개발협력의 주요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음.

2. 조사 및 분석 결과

1) 아프리카의 제반 농업여건을 감안할 때 생산성 향상과 같은 특정 부문에서의 개별사업보다는 **가치사슬 접근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음.**

- 아프리카 농민들이 생산한 잉여농산물이 적기에 판매처를 찾지 못해 들판에 그대로 방치되거나 또는 저장시설이 열악하여 상당 부분이 썩어 버려지는 경우가 다반사임.
- 가치사슬을 통해 거래시스템이 개선되면 농가취득가격(farm gate price)이 높아질 수 있어, 농민은 이를 계기로 생산확대와 품질개선 등을 꾀하고 이를 통해 '농업의 상업화'에 동참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됨.
- 그동안 시장과 연결되지 않은 개발 단위사업은 지속되지 못하고 중단되는 경우가 많았는데 이것이 농업 개발 협력사업 실패의 주요 원인 중 하나가 지적되고 있음.

2) 아프리카 농업의 저개발은 일차적으로 낮은 생산성으로 설명되는데, 이는 무엇보다도 비료, 종자, 농기계, 관개설비 등 농업 투입물(agricultural inputs)이 제대로 뒷받침되지 못하고 있는데 기인하고 있음.

● 농업 생산성을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적정수준의 비료 투입이 이루어져야 하지만, 현재 아프리카(SSA) 농민이 1년 동안 1ha당 뿌리는 비료의 양은 15kg으로 전 세계 평균(124kg)의 1/8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음.

- 아프리카의 비료 사용이 소량에 그치는 것은 가격이 너무 비싸기 때문인데, 잠비아에서는 농민이 지불해야 하는 비료가격이 톤당 414달러로 미국(226달러)의 두 배 가까이 이르고 있음.
 - 아프리카의 대다수 농민은 소농으로 도로에서 멀리 떨어진 지역에서 작은 단위로 농사를 짓고 있기 때문에, 많은 운송비용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데 이것이 비료가격을 높이는 가장 구조적인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
 - 아프리카 대부분의 국가들은 비료 생산기반이 없어 수입에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는데, 같은 비료 수입국인 태국에 비해 비료가격(소매)이 월등히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그 수치를 보면 아프리카 연안국들은 태국에 비해 25~30%, 그리고 내륙국가의 경우에는 이를 크게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남.

- 농업 생산성을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충분한 비료 사용과 함께 다수확 및 품질 개선을 위한 개량종자의 사용이 뒷받침되어야 하지만 아프리카의 개량종자 사용비율은 전 세계에서 가장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음.

- 생산성을 떨어뜨리는 또 다른 요인으로는 낮은 수준의 농기계 사용으로, 농사일의 대부분은 사람(65%)과 가축(25%)의 힘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어 기계에 대한 의존비율은 극히 미약(10%)함.

- 3) 아프리카에서 수확되는 벼의 대부분은 수집상(영세 거래상인)을 통해 정미소로 보내지는데, 품질등급(quality grade), 무게, 분량 등에 대한 표준화가 이루어지지 않아, 거래상인의 눈대중(personal inspection)으로 가격이 매겨지고 있음. 이는 농민과 구매자 간의 불신풍조를 가중시키고 있음.

- 아프리카 현지에서 생산되고 있는 벼 가운데 극히 일부분만이 현대적 시설을 갖춘 정미소를 통해 가공되고 있는데 르완다의 경우에는 그 비율이 10% 남짓에 불과함.

- 4) 농산물이 산지에서 소비지로 원활하게 유통되기 위해서는 교통, 통신, 전력 등 인프라, 금융 지원, 시장정보, 품질관리 등이 동시에 뒷받침되어야 하지만, 아프리카에서는 이 중 어느 하나도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고 있어 시장과 단절되어 있을 수밖에 없음.

- 에티오피아의 경우 곡물 거래상인 가운데 은행거래를 하는 비율은 1/3, 자동차를 보유하고 있는 비율은 6%에 불과함.

- 아프리카 농산물 시장은 전통시장과 슈퍼마켓 등 현대적 시장이 공존하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전통시장이 압도적으로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

5) 본 연구는 세네갈(최대 쌀 생산지인 세네갈 유역의 포도르 지역) 쌀을 대상으로 현지 조사를 통해 가치사슬 분석을 실시하였는바, 이를 축약하여 정리하면 다음과 같음.

- 생산자(농민)와 소비시장이 단절되어 있어 정부의 수입대체정책은 물론 농민의 소득증대와 농업 발전의 기회를 살리지 못하고 있음.
 - 세네갈강 유역은 세네갈 최대의 쌀 생산지로 전체 생산의 70%를 이상을 차지하고 있고, 현재 대규모 관개시설 확충과 경지정리 사업 등이 진행되고 있어 추가적인 생산 확대가 예상되고 있음.
 - 그러나 이 지역에서 생산되는 쌀은 주로 인근 농촌지역과 소득수준이 낮은 도시에서 판매되고 있으며, 다카르(수도, 인구 200만 명) 등 대규모 소비시장으로는 연결되지 못하고 있음.
 - 다카르에서는 수입쌀이 절대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데, 현재 다카르에서 판매되는 쌀 가운데 수입쌀이 차지하는 비중은 90%에 달하고 있음.
 - 수입쌀은 쉐미(일명 싸라기)로 국제시장에서는 인기가 없지만 오랜 기간 동안 세네갈 도시소비자의 입맛에 길들여져 있는 데다가 국내산 쌀이 수입쌀의 품질에 크게 미치지 못하고 있음.
- 말라위 등 많은 아프리카 국가들의 경우에는 '시장'이 없기 때문에 '생산'이 뒤따르지 않고 있지만, 세네갈의 경우에는 '시장'은 있지만 '품질'이 뒷받침되지 못해 가치사슬이 제대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음.
 - 2008년 발생한 세계 식량위기를 계기로 강력하게 추진된 세네갈 정부의 수입대체정책이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지 못한 채, 여전히 쌀 소비의 50~70%를 수입(약 100만 톤)에 의존하고 있는데, 이는 쌀 증산정책에 집착한 나머지 품질개선이 뒷받침되지 못한 것도 주요 원인 중 하나임.
 - 세네갈 대도시 소비자들은 가격보다는 높은 품질의 브랜드 상품에 대해 높은 선호도를 보이고 있는데, 이들은 명품브랜드 상품(쌀) 구매에 어느 정도(17%)의 높은 가격을 지불할 용의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조사됨.
- 도시소비자(높은 품질 요구)와 국산 쌀(낮은 품질) 간의 미스매치 문제 이외에 가치사슬의 흐름상 국산 쌀의 대도시 진입이 어려운 또 다른 요인으로는 복잡한 거래과정을 들 수 있음.
 - 세네갈 쌀 시장은 수입 쌀과 국산 쌀로 크게 양분화되어 있는데, 대부분 소농에 의해 생산되고 있는 국산 쌀은 복잡한 유통과정을 거치면서 판매되고 있음.
 - 수입 쌀은 도시(다카르, 생루이)에 대형 수입창고를 보유하고 세네갈 쌀 유통협회(UNACOIS)에서 막강한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는 프랑스(과거 식민종주국)의 대형업체들에 의해 대규모(연간 100만 톤 이상)로 거래되고 있음.
 - 이에 반해 세네갈 소농이 생산하는 국산 쌀은 바나바나스(Bana banas)라는 소규모 중간상인을 거쳐 영세하고 노후화된 정미소에서 가공된 다음에 또다시 소규모 거래상을 거쳐 도매상에 이르고 있음.

- 농민조직이 활성화되어 있지 않는데, 규모나 기능적인 측면에서 일반적인 농민조합과는 거리가 있음.
 - 농기자재(비료, 농약, 종자) 구매지원을 위한 대출 신청 중계 및 수확기에 대출금 상환을 위한 현물(벼) 수집 및 판매 등과 같이 생산단계에서의 활동은 이루어지고 있음.
 - 하지만 한국의 농협조직과 같이 자체적인 신용사업이나 농민으로부터 농산물을 집단적으로 수집하여 공동으로 저장하거나 가공(정미) 또는 공동으로 판매하는 농민조직 본연의 기능은 가지고 있지 않음.

6) 한국의 농정 경험 가운데 아프리카 국가들과 공유 가능한 분야로는 농기계화, 비료정책, 농업기술개발, 미국종합처리장(RPC), 농산물 품질관리, 농업협동조합 등으로 도출되었음.

- 한국 농업정책의 변천사와 아프리카 농업에 대한 지식과 사업경험(개발원조, KSP 사업 등)을 가지고 있는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자문회의, 워크숍 개최, 개별 면담 등을 통해 한국 농정경험의 공유 가능성에 대한 의견을 취합하였음.
 - 아울러 브레인스토밍을 통해 농업 가치사슬 단계별로 아프리카의 상황과 한국의 경험을 매칭시키는 방법으로 아프리카에 시사점을 주거나 공유 가능성이 있는 한국의 농정 경험을 도출하였음.

표 1. 한국의 농정 경험과 아프리카 적용 가능성 평가

	한국의 농정 경험	적용(공유) 가능성 및 차별성	종합 평가
생산 단계	경지 정리	아프리카 입장에서 시급한 현안이지만 한국의 비교우위(차별성)는 낮음(많은 원조기관에서 다양한 정책컨설팅 제공)	
	관개시설(댐, 저수지)		
	농업교육·지도		
	농기계화	농기계의 보급, 공동이용, 교육 및 사후관리 등의 측면에서 정책적 시사점 제공 가능	○
	비료정책	종합농협 설립을 통한 비료보급 정책 공유 가능성	○
	농업기술개발(R&D)	상이한 영농체계로 한국의 비교우위가 높지 않음. 다만 쌀, 옥수수, 감자 등 일부 농산물의 경우에는 기술 지원 가능성 있음	○
저장·가공 단계	농지개혁	사회·문화적 영역으로 공유가능성 거의 없음	
	미국종합처리장(RPC)	수확 후 일괄처리시스템에 대한 높은 수요와 한국의 풍부한 정책경험	○
	농가공 단지	한국의 비교우위 정책은 아니지만, 농가공 단지조성 등에서 정책 경험 공유 가능성 존재	○
	농촌부업단지	농가공단지 조성이 여의치 않은 경우에 정책 제안 가능	○
유통 단계	개량곳간 개발	대규모 저장시설 건립이 여의치 않은 경우에 정책제안 가능	○
	농산물 품질관리	농산물 품질인증, 표준 규격화 등에서 정책공유 가능성 있음	○
	도매시장	유통구조 개선(농가소득 증대 및 소비자 가격 안정)을 위해 필요하지만, 농산물 거래물량과 제반 하부시스템 등을 고려할 때 시기상조	
공통이슈 및 거시정책	국가 구매제도	이 중 곡가제 도입을 통한 농업생산 확대와 농가소득 보전이 필요하지만, 열악한 정부재정을 감안할 때 정책 제안의 수용성은 떨어짐	
	농업금융	종합농협 설립을 통한 신용사업 정책 제안	○
	농협조합	공동구매, 공동판매, 지도사업의 3대 기능을 갖춘 종합농협 모델 제시	○
	농촌 근대화 운동	새마을운동 경험 공유를 통한 여성 및 청년 인력 활용, 사회적 자본 및 역량개발	○
농업 재정·조세 정책	농업 재정·조세 정책	경제여건의 차이로 한국의 농정경험 공유 가능성은 낮음. 아프리카 국가들은 1980년대에 구조조정 프로그램(SAP)에 따라 농업 자유화 단행	
	농업 통상정책		

5) 상기 아프리카와 공유 가능한 한국의 농정경험 도출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이들 가운데 과연 어느 분야에 우선순위를 두고 정책을 제안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지를 가능하고자 계층화분석 방법론(AHP: Analytic Hierarchy Process)을 사용하였음.

- AHP 분석법을 통해 한국 농업정책 경험 공유의 상대적 우선순위를 측정한 결과, 농업협동조합정책, 비료 정책, 종자개발정책, 농기계보급정책, 농산물 저장·가공 정책, 농산물 품질관리정책 등의 순으로 도출되었음.

3. 정책 제언

1) 종합농협체제(multi-purpose agricultural cooperative system) 구축 지원

- 농업은 제조업 등 다른 산업과는 달리 계절성(seasonality)과 높은 불확실성(위험)을 그 특징으로 하고 있는 데다가, 대부분 시장교섭력이 약한 개별 농가나 소농에 의해 생산활동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를 집단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협동조합이 절대적으로 중요함.
 - 아프리카의 협동조합은 과거 식민지 시대부터 존재해왔으며, 활동범위가 제한적이어서 거래의 규모화와 시장교섭력 제고까지 이어지지 못하고 있음.
 - 아프리카에서 협동조합을 통해 농산물이 판매되는 비중(시장가격 기준)은 고작 5%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되고 있음.
- 아프리카 농민들은 담보 제공을 요구하는 상업은행 등 제도권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 대출이 극히 어렵기 때문에 금융 접근의 난맥상을 해소하는 것이 농업발전의 가장 핵심적인 과제임.
 - 아프리카에서 금융시장 접근이 가능한 농민 비중은 10%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으며, 그것마저도 이자율(연간)이 15%를 넘고 있어 농업의 수지타산을 맞추기 어려운 상황임.
 - 아프리카 금융기관들은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농민에 대한 대출을 극히 꺼리고 있는데, 현재 아프리카 상업은행의 농업대출 비중은 5~10%에 불과하며, 이것마저도 플랜테이션 및 대형 농가에 국한되어 있음.
- 아프리카 농협이 가지고 있는 구조적인 문제를 고려할 때 단순히 지배구조 개선이나 투명성 제고와 같은 부분적인 개선책으로는 문제해결이 어려우며, 한국의 농협과 같이 경제사업과 신용사업이 결합된 종합농협체제의 구축이 필요함.
 - 한국 농협은 구매사업, 판매사업, 교육(지도)사업 이외에도 신용사업 등 조합원이 필요로 하는

모든 사업을 함께 수행하는 체제를 통해 농업발전을 이끌어왔음.

- 한국 농협은 농기자재 업체, 농민, 가공업체, 유통·판매업체 등에 이르기까지 가치사슬 금융(AVCF: Agricultural Value Chain Finance)을 통해 농업발전의 선순환구조를 만들어냈다는 점에서 높이 평가되고 있음.

2) 농기자재정책의 지원: 비료정책, 종자개발정책

- 10억 명 이상의 인구규모와 세계에서 가장 빠른 인구증가율, 도시화와 소득증대에 따른 농산물 소비확대, 낮은 농업 생산성 등 여러 요인을 고려하면 토지단위당 생산량, 즉 토지생산성(soil productivity)을 획기적으로 끌어올리는 것이 핵심 현안이 아닐 수 없는데, 이를 위해서는 다수확 품종개발과 함께 비료보급 확대가 관건임.
- 역내 생산체제 구축을 통한 비료보급확대정책을 지원할 필요가 있음.
 - 토지의 생산성 향상을 위해서는 적당량의 비료 투입을 통해 토지의 비옥도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한데, 오늘날 아프리카 농민이 1ha당 뿌릴 수 있는 비료의 양은 15kg으로 동남아, 중남미는 물론 소득수준이 비슷한 남아시아 지역(104kg)에 비해서도 크게 뒤떨어지고 있음.
 - 아프리카 국가들은 비료 생산에 필요한 원료를 다량으로 보유하고 있으므로 민간기업 유치나 세계은행 등 국제금융기관들로부터의 지원을 통해 아프리카 역내에 비료생산체제를 구축할 수 있는 정책을 지원할 필요가 있음.
- 아프리카 쌀 연구소(Africa Rice Center) 등을 통해 종자개발정책을 지원할 필요가 있음.
 - 농업생산성을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충분한 비료의 사용과 함께 개량종자(improved varieties)의 사용이 병행되어야 하는데, 현재 아프리카에서는 종자시장이 발달된 남아공 정도를 제외하고는 농민의 개량종자 사용비율은 10%대에 그치고 있는 실정임.
 - 제조업 등 비농업부문은 해외로부터 기술도입을 통해 복잡한 연구개발(R&D) 과정을 생략할 수 있지만, 농업부문은 산업특성상 연구개발과 실험, 보급 등의 활동들이 현지에서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에 정부의 역할과 적극적인 개입이 필요함.
 - 아프리카 국가들은 최소 8개 이상의 주식작물을 재배하고 있고, 다양한 경작시스템(cropping system)과 협소한 시장규모 등을 그 특징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단순히 외국의 종자개발기술을 들여다가 아프리카에 접목(extrapolation)시키는 것은 쉽지 않음.

3) 수확 후 일괄처리시스템을 통한 가공 및 품질관리 정책을 지원할 필요가 있음.

- 아프리카에서는 수확 후 관리(post-harvest management)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어 농산물의 양적, 질적 손실이 막대하게 발생하고 있음.
 - 아프리카에서 생산되고 있는 쌀의 수확 후 손실(PHL) 비율은 무려 30~50%에 달하고 있으며, 심지어 수확한 곡식 전체가 들판에서 비에 젖어 썩거나 보관과정에서 곰팡이 균의 번식으로 버려지는 경우가 적지 않음.
 - 이는 저장창고시설과 저장기술이 절대적으로 부족하여 수확 후 관리체계가 작동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인데, 이로 인해 아프리카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의 상당 부분의 양적, 질적인 손실을 감내할 수밖에 없는 상황임.
- 이런 점에서 쌀의 수확 후 저장과 가공을 일괄적으로 처리하는 미곡종합처리장(RPC: Rice Processing Complex)과 같은 수확 후 일괄처리시스템 정책을 지원할 필요가 있음.
 - 현대시설을 갖춘 대규모의 저장·가공 시설인 미곡종합처리장은 충분한 물량확보가 뒷받침되어야 수익창출이 가능하고 지속적으로 운영될 수 있으므로 소규모 저장시설과 병행하여 추진하는 것이 필요함.
 - 농산물을 소량으로 생산하고 있는 데다가 집하여건이 좋지 않고 농촌마을에는 미곡종합처리장 설치가 어려우므로 이들 농가에 대해서는 소규모의 건조·저장시설 건립을 지원하는 정책을 모색하는 것이 필요함.

4) 정부역할 강화 및 제도(institution) 구축을 통한 통합적 지원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 아프리카 농업의 발전을 저해하는 요소들은 농업의 영역을 뛰어넘어 정치경제, 제도, 사회문화 등 전 분야에 걸쳐 존재하고 있음.
 - 가치사슬 측면에서 보면, 생산이전 단계인 농기자재 산업에서부터 시작하여 생산, 저장, 가공, 포장, 운송, 유통 등에 이르기까지 제반흐름이 형성되어 있지 못해 농산물의 시장접근을 어렵게 하고 있음.
 - 오늘날 아프리카 농업은 정부와 민간부문 양쪽 모두의 손길이 미치지 않는 사각지대에 방치되어 있음.
- 1980년대와 1990년대 실시된 세계은행과 IMF의 구조조정프로그램(SAP)은 아프리카 농업을 더욱 어렵게 했으며, 국제사회의 대규모 원조자금과 무수한 정책 컨설팅들 역시 아프리카의 농업발전으로 이어지지 못하고 있음.

- 아프리카의 농업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여러 분야를 동시에 아우르는 종합적 또는 통합적(integrated) 접근이 요구되는데 이를 위해서는 정부의 역할 강화(intervention)가 요구되고 있음.
 - 아프리카 농업은 제반 여건이 열악하고 발전 초기 단계에도 진입하지 못한 상황에서 여러 시장 실패(market failure)문제에 직면해 있으므로 과거 한국만큼은 아니더라도 국가 주도의 농업정책을 통한 발전의 토대를 만드는 것이 필요함.

- 정부의 역할 강화와 함께 중요한 것이 제도(institution)와 거버넌스의 구축임.
 - 아프리카의 거의 모든 국가들은 최소한 외형적으로는 웬만한 조직과 제도를 갖추고 있지만, 국가 사회적 역량 부족과 거버넌스 부재로 실제로 이들이 제대로 작동하는 경우는 많지 않음.

- 새마을운동 경험 공유를 통한 역량 구축사업을 지속적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음.
 - 아프리카 농업발전은 단순히 원조자금 등 물적 자본 투입만으로 해결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며 자생적, 참여적 개발과 같은 새마을운동의 기본원리가 필요함.
 - 새마을운동은 세계은행, UN, OECD 등 국제기구에서 강조하고 있는 제도적 능력 배양 (institutional capacity building), 참여적 개발(participatory development), 주민의 역량 개발(empowerment) 등의 방법론과도 일맥상통하고 있음.
 - 아프리카개발은행(AfDB)에서도 새마을운동에 대해 특별히 주목하고 있는데 정신계몽, 농촌소득 증대, 농촌인프라 개선, 전기보급, 주택개량, 위생보건 환경개선, 새마을보육원(농사철 아이돌봄 서비스), 여성 및 청년에 대한 동기부여, 가계부 작성 등에 이르기까지 새마을운동 관련 세부 사항을 소개하며 새마을운동의 성공요소에 대한 벤치마킹을 적극 희망하고 있음. **KIEP**